

광주·전남 현안사업 예산 국회로

“지역 정치권 공조 ... 삭감·누락분 되살려야”

신재생에너지·무안 기업도시 등 50여개 달해

민주당 지도부 차원 예산 확보 분위기 조성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국회로 넘긴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신규 현안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미반영되거나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반영 등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60여개에 이른다.

광주시의 경우, 10여개의 신규 사업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150억원), 광주 R&D특구 지정·육성(77억원), 국립 광주 다문화센터(60억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50억원) 등 4개 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됐다.

여기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지원, 탄소 배출권 거래소 유치, 환경기술센터 건립,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건립, LED 조명도시 조성 사업,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관련 예산도 당초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액에 비해 20%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 경우, 무려 40여개의 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당초 요구액에 비해 상당 부분 삭감됐다.

우선 무안 기업도시 진입도로(232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230억원), 국립심혈관센터 설계비(100억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300억원), 국립 메디칼 센터(30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시설원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지원 사업(84억원), 화교급식지원센터설립 운영 자금(60억원), 한우산업클러스터(20억원),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43억원) 등의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천연염 산업화 기반 구축(72억원 요구, 15억 반영)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요구액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오른쪽부터)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정부예산안 등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 체제를 구축, 국감 이후 이뤄지는 예산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역 예산 반영에 신경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 교체가 이뤄진데다 여대야소 국면이라는 점에서 내년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배수의 진’을 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의 영향으로 정부 부처에서 호반 예산을 과

거처럼 챙기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며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굳건한 공조 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입식품 보관 보세창고 10곳 중 9곳 위생 ‘엉망’

광주식약청 산하 8곳도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창고 10곳 중 9곳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지방식약청 산하 보세창고 9곳 중 단 1곳만 조건을 위생관리가 잘 돼 있고 나머지 8곳은 위생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보세창고 위생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영업용 보세창고 중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445곳 가운데서 식약청의 위생관리 항목 18개를 모두 충족한 업소는 전체의 11.2%인 50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395개소는 모두 위생관리에서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고 점검항목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9개 이상 문제점이 지적된 창고도 11개나 있었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작업장 설치 불량(51.7%가 가장 높았고 방충·방서(防糞) 장치 미흡(42.7%), 부적합 제품을 별도 관리하지 않은 점(36.9%), 식품 분리 부적절(31.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방식약청 산하 보세창고 9곳 중 단 1곳만 위생관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나머지 8곳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곳은 8건의 지적을 받아 위생관리에 무방비 상태였다.

박 의원은 “보세창고는 수입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이나 지금까지 보세창고 위생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아 수입식품이 장기간 비위생적으로 방치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고압배전선로 지중화율 전남 3.8% ... 전국 ‘꼴찌’

주승용 의원 국감자료 분석 전남지역의 고압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6개 시·도의 지중화율은 서울 51.7%, 대전 46.2%, 부산 31.9%, 제주 12.0%, 충남 5.2% 순이었으며 전남은 3.8%로 가장 낮았다.

고압배전선로 지중화를 추세를 보면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2003년 9.8%에서 2008년 13%로 3.2% 포인트 상승한 반면 전남은 2003년 3.3%에서 2008년 3.9%로 5년간 고작 0.6%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지상의 고압배전선로는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안전사고에 상시로 노출돼 있어 위험하지만 고압배전선로를 지중화했을 때 미관 개선과 재해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전남은 2012년 대형 국제행사인 여수 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고압배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친환경적인 활용인가, 파괴인가”

광주시의회가 무등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관련,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무등산 보호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근 시의회에 상정됐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류시켰던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근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광주시의회 이철원(50·북구 5) 의원을 비롯, 찬반 입장을 시민단체, 광주관광협회 등 경제계, 도시개발 및 조경학 전문가 등 학계 등이 참여해 조례안을 포함, 무등산 개발·보존을 둘러싼

“친환경 활용” vs “자연 파괴”

광주시의회 7일 무등산 개발 토론회

‘조례안’ 싸고 찬반 논란 가열될 듯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무등산 관광자원화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원구역에 포함된 무등산 일대가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무등산 일대에 케이블카, 생태체험공원과 테마파크 등을 설치하거나 인근 수원지에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 따라서 조례안과 관련, 개발·보존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무등산의 경관과 문화 환경 등 자연 자원을 파악,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무등산을 보다 시민들과 가깝게 하고 향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은 “친환경적 무등산 관리 운영에 찬물을 끼얹는 약발이 될 소지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토론회에서 대적들이 예상된다.

시의회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은 “무등산은 지역민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조례안에 대한 논쟁이 찬반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이철원, 송재선(51·서구1) 의원 등 시의원 5명이 상정된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뒤 재상정기로 하고 ‘계류’ 결정을 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MBC 문화방송 광고. 무안 - 광주(통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정사(참가게, 환가게)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에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 MBC 문화방송 상품입니다(www.kjmbc.co.kr). '기존의 예까지 신종리 허번이 다릅니다'. 광고 내용은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무안-정사/환가게 직항 전세기, 그리고 무안공항 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한 정보와 예약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약 전화는 062-226-8070로 안내된다.